시련의 파도 건너는 강인한 힘의 장엄

사찰 속 숨은 친구찾기

⑨ 불교문화 속 어룡, 마갈어(摩竭魚)

앞선 글에서 동양의 드래곤인 응룡(應龍)을 살펴봤다. 하늘에는 날개 달린 응룡이 있다면 물에는 어룡(魚龍)이 있다. 용과 물고기의 합성체인 어룡은 머리는 용, 몸은 물고기 형태를 지닌 이미지가 가장 보편적이다. 이와 같은 어룡의 모습은 물고기가 용이 된다는 등용문(登龍門) 고사를 비롯해 수많은 동양문화 속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룡의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도자기부터 조선 후기 민화(民畵)에 이르기까지 그 사례는 많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건 불교미술이다. 김해 은하사와 고성 운흥사 등 해안 지역 사찰벽화를 살펴보면 어룡이 표현돼 있으며, 불전사물(佛殿四物) 가운데 물의 중생을 제도하는 목어(木魚) 역시 어룡으로 제작된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런데 불교에는 어룡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바로 마갈어(摩竭魚)다. 이름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수많은 경전 기록과 불교미술에는 이 마갈어가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갈어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건물 기단의 마갈어 부조상(인도 기원전 1~2세기, 영국박물관).


공주 무령왕릉 출토 왕비 베개의 마갈어 문양(백제 7세기, 국립공주박물관).


쌍어룡문경(고려 중기, 국립중앙박물관).

머리는 용, 몸은 물고기 형태 보편적
해양 생물 대표 또는 바다 자체 상징
바다의 빌런, 때론 선행 베푸는 존재로
기단에서 벽화 목어까지 사찰 곳곳에

거대한 바다생물

산스크리트어로 마카라(Makara) 혹은 마갈(Magar)이라고도 부르는 마갈어는 불교문화 속에 등장하는 상상 속 동물이다. 한역된 불교 경전에서는 마갈어를 마갈대어(摩竭大魚), 마가라어(麼迦羅魚), 어마갈(魚摩竭)이라고도 기록돼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만큼 마갈어는 생김새도 다채롭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마갈어는 악어 머리에 코끼리 코, 물고기 혹은 고래 몸을 지니고 있다고 하며 지느러미가 날개처럼 활짝 펼쳐져 있거나 네 다리가 달린 모습으로 표현돼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마갈어는 불교에서 어떤 상징을 지니고 있을까? 우선, 마갈어가 바다에 사는 동물인 만큼 해양 생물의 대표 혹은 바다 그 자체를 상징한다. 〈중아함경(中阿含經)〉에는 파라라(婆羅邏)라는 이가 부처님께 바닷속 거대한 존재에 대해 고하는 내용이 기록돼 있는데 이 가운데 마갈어를 언급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존이시여, 우리의 큰 바다 가운데에는 큰 신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큰 신의 이름은 아수라(阿修羅), 건탑(乾塔), 나찰(羅剎), 어마갈(魚摩竭), 거북, 악어, 파유니(婆留泥), 제예(帝麑), 제예가라(帝麑伽羅), 제제예가라(提帝麑伽羅)입니다. 또 큰 바다 가운데는 참으로 기이하고 특별하여, 중생의 몸은 1백 유연(由延)도 되고, 2백 유연과 3백 유연, 나아가 7백 유연쯤 되는 것도 있습니다.

〈중아함경〉에서 파라라는 바다에 살고 있는 여러 신의 이름과 크기를 묘사하고 있는데, 마갈어를 몸길이가 1백에서 7백 유연에 달하는 바다의 신이라 말하고 있으며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는 마갈어의 크기를 산에 비유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경전에는 마갈어를 최대 7백 유연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는데 현대 단위로 환산하면 1유연은 최소 15km에 이른다. 이에 7백 유연에 이르는 마갈어가 얼마나 거대한 몸집을 지니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같은 경전에는 마갈어를 물에 태어난 축생(畜生)의 대표라고 말하고 있으며 〈보살영락경(菩薩瓔珞經)〉과 〈삼법도론(三法度論)〉에는 마갈어를 물에 사는 축생의 대표, 해수(海獸) 그 자체라고 언급하고 있다.

고통을 주는 바다 괴물

거대한 몸짓을 지닌 마갈어는 사람들을 고난에 빠뜨리는 괴물로 묘사돼 있기도 하다. 불교 경전 속 마갈어는 배를 침몰시키고 사람들을 해치는 바다의 빌런으로 등장하는데 〈수행도지경(修行道地經)〉에는 "배를 타고 큰 바다를 다니다가 마갈어의 입을 향하여 배가 뱃속에 들어가려고 할 때 자비심을 내시어 그 배를 구제하시고"라며 온갖 고통과 위기에서 중생을 구해주시는 부처님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곡성 태안사의 용두형 목어(조선 후기).

〈수행도지경〉 외에도 배를 공격하는 마갈어에 대한 기록은 여러 경전에서 확인된다. 〈대승집보살학론(大乘集菩薩學論)〉에서는 마갈어가 중생을 씹어 삼킨다고 하였으며, 〈경율이상(經律異相)〉과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에는 마갈어의 공격으로 배가 침몰한 상인들의 에피소드가 등장한다.

이쯤 되면 우리는 떠오르는 게 있을 것이다. 그것은 동화 〈피노키오〉의 한 내용이다. 행방불명된 피노키오를 찾기 위해 아버지 제페토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거대한 고래에게 삼켜지게 되고 후에 피노키오에 의해 구출된다.

서양 동화 작품을 불교 경전을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심심치 않게 고래 뱃속에 갇힌 사람들의 스토리를 찾아볼 수 있다. 혹시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마갈어의 모티프가 고래는 아니었을까? 앞서 살펴본 불교 경전 속 마갈어의 그 거대한 크기만 봐도 유추해 볼 수 있다. 게다가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를 몇몇 기록에서 마갈어를 경어(鯨魚)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다들 알다시피 경어는 고래를 지칭하는 단어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정말 마갈어의 모티프가 고래인 걸까? 물론 현재까지 이에 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로부터 존재한 거대한 고래를 고대인들 역시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여러 이야기와 상징이 맞물려 마갈어라는 환상 속 동물이 탄생했음은 분명한 듯하다.

다채로운 모습을 지닌 불교미술의 마갈어

위에서 보았듯이 마갈어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몇몇 기록을 살펴보면 선행을 베푸는 존재로도 등장한다. 〈현우경(賢愚經)〉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설화인 〈본생담(本生譚, jātaka)〉이 실려 있는데 여기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생에 거대한 물고기였다고 한다. 이 물고기가 한 나라의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몸을 내어주었고, 그로 인해 모든 백성이 목숨을 구했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이 물고기의 크기는 5백 유연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앞서 살펴본 여러 기록을 보았을 때 이 물고기의 정체는 마갈어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다양한 성격을 지닌 마갈어는 불교미술로도 표현된다. 인도불교의 경우 마갈어를 장식 문양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두드러지는 부분은 건물 기단 부조의 마갈어 문양이다. 이는 마갈어를 건물 문양으로 사용하라고 언급된 〈마가승기율(摩訶僧祇律)〉 내용과 함께 거대한 마갈어가 건물을 잘 지킬 것이라는 당시 사람들의 관념인 것이다.

마갈어는 중국불교를 거쳐 우리나라 미술로도 표현된다. 가장 이른 사례는 현재 공주 무령왕릉(武寧王陵)에서 출토된 왕비의 베개로, 두 봉황 머리와 귀갑문(龜甲文)으로 장엄된 여러 문양 중 마갈어로 추정되는 괴어(怪魚)가 확인된다. 문양만 있을 뿐 기록이 없기에 이 괴어가 과연 마갈어가 맞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될 순 있지만 함께 장식된 불교의 연화문, 당시 찬란하게 꽃피운 백제의 불교문화 등을 유추했을 때 그 가능성은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이외에도 고려시대에 제작된 동경에는 바다를 건너는 배 옆에 마갈어가 헤엄치고 있고, 쌍어룡문이라고 알려진 동경 속 괴어 역시 불교문화 속 마갈어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마치며

세상을 살아가는 건 쉽지 않다. 산 넘어 산이요,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다. 그러나 이런 위기를 하나씩 해결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더욱 성장한 자신을 느낄 수 있다. 혹시 불교문화 속 마갈어가 이런 상징은 아닐까? 우리에게 험난한 시련을 주는 것 같지만 이 위기를 통해 더욱 강해지게 만들고, 가피를 바라는 불심 또한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말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 번쯤 마갈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김용덕 작가

백제 풍탁(특대)
백제 미륵사지 풍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소리가 좋다! 아름답다! 튼튼하다!



성종사에서 제작하여, 소리가 좋은 것은 기본이며, 아름답고, 내구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입니다.
(구입방법 : 네이버에서 미륵사지 풍탁으로 검색)

1. 튼튼한 스텐레스 소재의 링과 굵고 튼튼한 황동 체인, 황동판으로 제작되어 강한 바람에도 쉽게 물고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제작되었습니다.
2. 풍경의 소음 때문에 풍경 설치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요구에 따라 요청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문 제작해 드립니다.
3. 바람판(물고기판)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연꽃, 구름, 종기 등 다양한 형태로 주문 제작해 드립니다.
4. 표면의 종기 부분을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변경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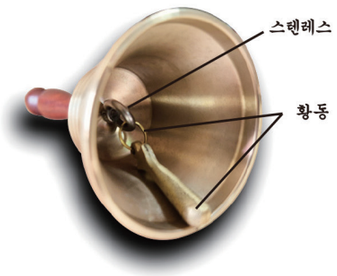
규격
- 종 : 19×14×31cm
- 바람판 : 30×13cm
- 가격: 120만원(개금 150만원)

조계종 화엄사, 광제사, 직지사, 석굴암, 천태종 구인사, 월명사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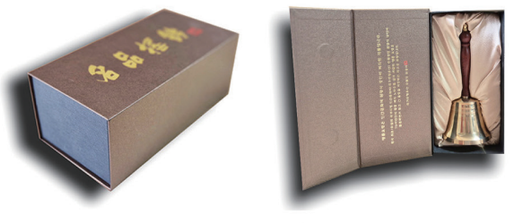
성종사, 소리 좋고 튼튼한 명품 요령 출시!
사부대중의 요청에 따라 성종사에서 범종용 합금으로 소리 좋고 튼튼한 요령을 출시하였습니다. (구입방법 : 네이버에서 소리 좋은 요령으로 검색)



규격 小 : 74×74×180mm / 198,000원
大 : 88×88×200mm / 242,000원



오래 사용하여도 끊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제작된 추와 링



선물용으로 적합한 최고급 포장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